

‘잘 싸웠다’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중국에 연장 끝 석패… 16년만에 은메달

2026 동계패럴림픽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 은메달 이후 16년 만에 시상대

에선에서 단 1패한 중국 상대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2점차 패배

한국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조가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며 동계패럴림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백혜진-이용석 조는 1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에서 중국의 왕명-양진차오 조에 연장 혈투 끝에 7-9로 아쉽게 졌다.

이로써 백혜진-이용석 조는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끊겼던 한국 휠체어컬링의 동계패럴림픽 메달 명맥을 16년 만에 이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에서 강미숙, 박길우, 김학성, 조양현, 김명진으로 이뤄진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해 한국 휠체어컬링 사상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시상대에 섰다.

이후 한국은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메달과 연을 맺지 못했다가 백혜진-이용석 조가 이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는 믹스더블에서 은메달을 수확해 16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

백혜진-이용석 조의 은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5번째 메달이다. 메달 3

개(금 1·은 2)를 수확한 노르딕스키의 김윤지(BDH파라스)를 앞세운 한국은 동계패럴림픽 단일 대회 최고 성적을 새로 쓴 상태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 혼성 4인조 멤버로 나서 예선 탈락의 아픔을 맛본 백혜진은 메달을 품에 안으며 한을 풀었다.

이용석은 처음 나선 패럴림픽 무대에서 메달 획득의 기쁨을 만끽했다.

백혜진은 남편인 남봉광(경기도장애인체육회)과 호흡을 맞추다 후배인 이용석과 새롭게 짝을 이뤄 패럴림픽 무대에 도전했다.

팀을 결성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재활하고 함께 배드민턴을 했던 둘은 ‘잘싸움’을 자랑했다.

대표 선발전에서는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조민경-정태영 부부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고, 패럴림픽 무대에서는 한국 휠체어컬링의 숙원을 풀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 은메달 멤버였던 박길우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이번엔 제자들의 메달로 미소 지었다.

8개국이 풀리고 방식으로 경쟁한 예선

에서 4승 3패를 기록하고 3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백혜진-이용석 조는 전날 펼쳐진 준결승에서 미국을 6-3으로 완파, 한국 휠체어컬링 사상 두 번째로 결승 무대를 밟았다.

결승 상대는 강호 중국으로, 쉽지 않은 상대였다. 중국은 예선에서 6승 1패를 거둬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의 예선 4차전에서 6-10으로 졌던 백혜진-이용석 조는 이날은 두 차례 스틸(선공 팀이 득점에 성공하는 등 조절전을 받았다. 그러나 선공으로 들어선 연장에서 아쉽게 2점을 헌납하며 승기를 내줬다. 백혜진-이용석 조는 불리한 선공이었던 1엔드에서 대거 3점을 내줬다.

백혜진이 9번째 샷으로 하우스 중앙 버튼에 가깝게 위치한 중국의 스톤을 밀어내며 1번 위치를 차지했지만, 왕명이 던진 마지막 테이크아웃 샷이 한국의 1번 스톤에 적중했다.

2엔드에서 1번 스톤을 끝까지 지켜내 1점을 만회한 백혜진-이용석 조는 3엔드에 2점을 헌납하며 1-5로 뒤졌다.

4엔드에 백혜진의 마지막 드로 샷으로 다시 1점을 따라붙은 백혜진-이용석 조는 5엔드에서는 스틸하며 3-5로 추격, 기



한국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백혜진-이용석 조가 1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에서 중국에 7-9로 지어 은메달을 딴 후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세를 살렸다. 5엔드에서 이용석이 정확한 드로 샷으로 1번 위치를 선점한 후 가드를 잘 만들었다.

중국은 6엔드에 파워플레이를 사용했다. 파워플레이는 후공을 가진 팀이 사전에 배치하는 스톤을 기존의 정중앙이 아닌 양옆으로 변경해 대량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권한으로, 경기당 한 번 쓸 수 있다.

6엔드에서 중국이 마지막 왕명의 드로

샷으로 2점을 보태면서 3-7로 뒤진 백혜진-이용석 조는 7엔드에 파워플레이를 썼고, 대거 3점을 따라붙었다.

중국이 1번, 한국이 2, 3번 위치를 점하던 상황에서 백혜진이 마지막 테이크아웃 샷으로 중국의 1번 스톤을 쳐내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선공이던 8엔드에서 동점 점수를 뽑으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한

국이 1번 위치를 지키던 상황에서 왕명이 마지막 드로 샷에서 실수를 범했고, 한국에 1점이 주어졌다.

연장 엔드에서 백혜진, 이용석의 드로 샷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다. 중국은 양진차오의 테이크아웃 샷이 적중하면서 1, 2번 위치를 모두 가져갔다. 백혜진의 마지막 드로 샷이 계획보다 멀리 나가면서 중국의 승리가 확정됐다. /뉴스시스

3월 A매치 앞둔 홍명보호, 명단 발표 직전 주말 K리거 최종 점검

‘홍명보 사단’이 3월 A매치 발표 전 전국 각지로 흩어져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을 최종 점검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1일 뉴스를 통해 “3월 A매치 명단 발표 직전인 이번 주말 축구 대표팀 코치진이 K리그 현장을 방문한다. 축구 대표팀 후보에 든 선수들이 있는 구단 쪽으로 보러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의 이동 계획은 아직 없다. (명단 발표 전) 마지막 주말에는 TV를 통해 모든 경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다음 코치진 의견을 취합해 명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의 코리아풋볼파크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한다.

코치들은 14일과 15일 전국 곳곳의 경기장을 찾아 주요 선수들을 체크하고, 이후 홍 감독과 만나 3월 A매치 명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까지 90여일 남은 가운데 홍 감독은 지난달 김진규 코치, 김동진 코치와 2주간 유럽 곳곳을 돌며 해외파들을 점검했다. 영국에선 황희찬(울버햄튼)을 비롯해

엄지성(스완지), 배준호(스톡크), 양민혁(코번트리), 백승호(버밍엄), 전진우(옥스퍼드) 등과 만났다.

독일에선 부주장 이재성(마인츠), 현철(레겐스부르크), 안재현(레겐스부르크), 최병기(레겐스부르크)와 만났다.

또 네덜란드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 프랑스에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점검한 뒤 돌아왔다.

“이번 출장을 통해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한 홍 감독은 “대회 개막까지

전 스태프와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홍명보호는 국내의 주요 선수를 점검한 뒤 실전과 같은 평가전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뭉치는 축구대표팀은 16일 명단 발표 이후 23일 인천국제공항에 소집돼 비행길에 오른다.

‘FIFA 랭킹 22위’ 한국은 28일 오후 11시 영국 밀턴 킨스의 스타디움 MK에서 ‘37위’ 코르티나담페초, 4월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

움에서 ‘24위’ 오스트리아와 격돌한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 멕시코, 남아공과 뭉였으며, 코르티나담페초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남아공과 유럽PO 패스D 승자를 대비하기 위해 초대할 스코팅 상대다.

두 팀 모두 유럽 배려자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소중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코르티나담페초는 아마드 디알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 디오만테(라이프치히), 에반 은디카(AS 로마), 에반 게상(셀리스) 등이 선봉에 설 전망이다. /뉴스시스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유리창 드론 청소

발전소·설비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공장 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대상 : 아파트(중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워셔(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발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정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문의 0507-1491-1677

유한드론솔루션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 yuhan_drone1@naver.com | yuhandrone_solution